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총체적인 인간상과 신앙

김정은 성균관대학교

I. 서론

II. 본론

1.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목적
2.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과제
3.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상태
4. 총체적 인간상
5. 인간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방법
6. 총체적 인간상과 신앙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프리드리히 실러는 괴테와 함께 독일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이며, 철학자이자 문화 이론가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적인 철학이자 이론으로서 ‘미적교육론’은 서구의 구조적인 격변기로서 18세기 후반에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서구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 또는 초기 현대로 넘어오는 구조적 변화의 시기이자 프랑스혁명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이 발발하여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론에서는 아름다움과 예술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미적교육론을 통해 인간에게 미적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상황과 관점에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미적교육론이 완성되던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적교육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철학적이고 역사철학적인 관점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실러가 이러한 방식으로 미적교육론을 전개한 것은 미적교육론을 문학 또는 미학의 분석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의 미적교육론에서는 정치학, 철학, 역사철학, 교육학, 사회학 등 인간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역사가이면서 당대의 시민으로서 시대 의식을 가지고 시대의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였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시대 상황에 염두를 둔 작가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적 방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정치 개혁 역시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사회 개혁 대신에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 자체의 개혁, 즉 예술에 의한 인간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문학과 예술을 인간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정립하였다.

본 글의 목적은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론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과 논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적교육론에서 언급되는 총체적인 인간상에 대해 알아보고 총체적인 인간상으로 가득 찬 사회를 구현함에 있어 신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목적

취향과 아름다움의 교육 목적은 우리의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힘 전체를 가능한 최대로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예술, 미적 교육을 통해 과도한 긴장과 이완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상반되는 한계가 없어진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개별적인 힘들의 일방적인 활동에 의해 존재의 조화가 깨진 긴장된 사람에게는 조화를 재건할 수 있다. 또한 감각과 정신에 동시에 발생한 무기력으로 본성의 통일성이 이완된 나태한 사람에게는 힘을 재건함으로써 그 한계가 없어지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 인간의 제한된 상태가 절대적인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자기 자신 안에서 완성된 전체로 만든다.

오직 취향과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인간의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향과 아름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취향이 개인조화를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조화롭고 행복한 인간만이 사회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이러한 인간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미적교육이 필요한 목적이며 이유라 할 수 있다.

2.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과제

인간은 더욱 고귀하게 욕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고귀한 욕망은 미적 문화와 미적 교양 또는 수련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 미적으로 조율된 인간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즉시 보편타당하게 판단하고 보편타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은 단순히 그의 자의를 통제함으로써 그 본성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고 그 본성을 자기 자신의 친구로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단순한 자연적, 물리적 삶이 형식에 합치시키는 것, 그리고 그가 아름다움의 왕국에 늘 도달 할 수 있을 만큼만 미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화와 교양의 과제이다.

미적 국가의 아름다운 교제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인간에게 오직 형태로서만, 그리고 오직 자유로운 놀이의 대상으로서만 대면하여 선다.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 이러한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3.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상태

미적 상태의 교육적 의미는 주체의 상태를 관련시켜 볼 때 파악할 수 있다. 아름다움이라 느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우리가 느낌을 받고 반영을 받게 되는 대상이다. 둘째는 아름다움의 표상을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상태이다. 미적 상태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각은 사유로 직접 이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수용성을 자발성과 바꾸고, 수동적인 규정을 능동적인 규정과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모든 규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순수한 규정가능성의 상태를 통과해야 한다. 그 상태는 내용적으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이며, 마음은 이 중간적인 정조를 통해 감각에서 사유로 이행한다.

이 중간적인 정조에는 감성과 이성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규정하는 힘이 서로를 지양하고 그 대립적 작용을 통해 부정이 생겨난다. 마음이 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강제되지 않고,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활동하는 이러한 중간적인 정조는 특별히 자유로운 정조라고 부를 수 있다. 감각적 규정의 상태를 물리적인 상태라 하고, 이상적 규정의 상태를 논리적, 도덕적인 상태라 한다면,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규정가능성의 상태를 미적인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미적 상태의 인간은 영(0)이다. 여기서 미적 상태의 인간을 영(0)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용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0)이지만, 규정이 없으면서 동시에 무한한 규정가능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이며 어떠한 실질적인 것이 따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마음의 미적 정조를 개별적이고 특정하게 작용하는 순간으로 볼 때는 영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적 정조를 전혀 제한이 없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힘들의 총합을 주목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을 최고 실제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고 모든 제한이 부재한다. 오직 미적 상태만이 그 자신 스스로 온전하다. 왜냐하면 미적 상태는 그 자신의 근원과 존속의 모든 조건을 자신 안에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실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오직 여기서만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외적인 힘들의 작용에 의해 중단되거나 방해받지 않은 것처럼 순수성과 통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 납니다.”¹⁾

4. 총체적 인간상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는 우리 시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지만 시대의 요구와는 그리 멀지 않은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경험에 나타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인간은 아름다움을 통해 자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법 과정에서 이성이 주도권을 갖게 만드는 원칙들을 당신께 상기시키지 않고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²⁾

인간소외 문제에 있어서도 실러는 자기소외는 결코 국가 내지 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봤다. 이유는 바로 국가 내지 사회가 이런 인간의 자기소외를 조장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는 실러의 인류학적 기본 원칙에 따르면 그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단적 객관화 형태에 불과하다. 정치개혁의 실패는 바로 인간 총체성의 상실이라는 인간소외로부터 비롯된다. 현대 문명으로 인해 인간이 자기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정치개혁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간의 자기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내적인 분열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실러는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성은 물리적 사회 안으로 도덕적 통일성을 가져올 때 자연의 다양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이 사회의 도덕적 구조 안에서 자신의 다양성을 주장하고자 할 때 그로 인해 도덕적 통일성이 침해 받아서도 안 됩니다. 획일성과 혼란으로 똑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 형식의 승리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므로 강제(필요)에 의한 국가를 자유의 국가로 바꿀 능력과 품격을 갖추려는 국민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특성은 바로 품성의 총체성입니다. (도덕성과 감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춘)”³⁾

인간의 총체성 형성은 모든 정치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연적이 조건이다. 그 까닭은 인간이 총체성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사회 내지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총체성의 형성은 바로 아름다운 예술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름다운 예술에 관해서 비록 수많은 목소리들이 비판을 가했지만 이 비판은 모두 다 경험적

1)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프리드리히 실러, 윤선구 외 5명 옮기고 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07.20., 385쪽
 2) 미학편지,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안인희 옮김, HumanArt, 2012.05.14., 49~50쪽
 3) 미학편지,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안인희 옮김, HumanArt, 2012.05.14. 63쪽

인 아름다움의 결과이다. 실리는 아름다움 내지 아름다운 예술이 인간 총체성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이 인간성의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인간의 총체성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 즉 미적인 상태를 실리는 “제로 상태(영, 0)”라고도 부른다. 그가 미적인 상태를 제로 상태라고 부른 까닭은 미적인 상태가 그 어떤 구체적인 의식이나 판단,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로 상태는 오직 인간의 모든 잠재적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최고의 상태임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체험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최고의 잠재적 가능성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인간의 제2의 창조자로 정의될 수 있다.

5. 인간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방법

프리드리히 실리는 인간이 인성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다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간은 맹목적 충동 사이의 갈등이 진정되고 그의 내면에서 거친 대립이 중지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다양성에 양분을 주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또 한편 품성의 독자성이 확립되면서 타인의 독선적인 권위에 굴종하지 않고 자유를 확보한 다음에야 인간 내면의 다양성이 이상적이 통일성에 복종해도 된다.. 자연의 인간이 법도 모르는 채 멋대로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그 자신의 자유를 보여줄 수 없으며, 문명의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에게서 그나마 자의성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자연주의의 원칙들을 선물했더니 그 원칙들이 끊어오르는 힘에 합류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강한 자연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할 뿐이라면 그 같은 선물은 사회 전체에도 배신 행위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아직 허약하게 물리적 한계에 묶여 있어서 독자적 활동성과 개성의 마지막 희미한 불꽃마저 꺼져가는 판에 화합의 법칙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독재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시대의 품성이 깊은 품격 상실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맹목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단순성, 진실성,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아마 도중에 많은 시도들이 개별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개별적인 성공을 통해 개선되는 점은 없을 것이며, 실제 행동상의 모순들은 여전히 원칙의 통일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세계의 다른 부분에 있는 흑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유럽에 있는 사상가들의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낡은 원칙들이 그대로 남은 채 다만 시대의 유행 의상을 걸치고 과거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던 억압이 이제는 철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첫 시도에서는 항상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유에 질겁해 사람들은 한편으로 마음 편한 노예 상태로 도망치려 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꼼꼼한 후견과 통제에 절망해 방종한 자연 상태로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 본성의 허약함을 구실로 권력 찬탈이 이루어지고, 인간 본성의 품위를 핑계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모든 인간사에서 대담한 결정권자인 맹목적인 폭력이

개입해 원칙들 사이의 싸움을 평범한 주먹싸움 다루듯이 해결할 지도 모른다.

마음이 물리적, 도덕적으로 강제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둘 모두의 방식을 활동하는 이 중간 정조를 자유로운 정조라 부른다. 감각적 규정의 상태를 물리적 상태, 이성적 규정의 상태를 논리적, 도덕적 상태라고 부른다면, 현실적이면서 활동적인 이 같은 규정 가능성의 상태를 미적 상태라 불러야 할 것이다. 프리드리히 실러가 말한 인간은 아름다움을 통해 자유에 이른다는 말에서 자유란 정치적 자유를 의미한다. 물론 사회를 개선하고 정치적 자유로 직접 넘어가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회적인 길이다. 미적 국가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나는 이러한 질문의 답을 다음의 ‘총체적 인간상과 신앙’으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6. 총체적 인간상과 신앙

프리드리히 실러는 미학편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 미적 국가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들어 낸다.

“이 같은 미적 가상의 국가가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필요성으로 보면 모든 섬세한 영혼에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교회나 순수한 공화국의 경우처럼 몇몇 정선된 모임(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것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덕을 무조건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은 대담한 단순성과 고요한 무구(무죄)함으로 가장 복잡한 상황도 통과하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모욕할 필요가 없고, 우아함을 보이기 위해 품위를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⁴⁾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프리드리히 실러는 총체적인 인상으로 가득 찬 미적 국가의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도 낮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미학편지에서 이와 같은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1,000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군소적으로나마 이와 같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이 늘어날수록 미적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프리드리히 실러가 언급한 미적 가상 국가의 작은 형태로서 ‘순수한 교회’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프리드리히 실러가 교회로 대변되는 신앙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미적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실러는 교회라는 공간을 정선된 모임이 가능한 장소라 밝혔다. 이는 장소의 의미로서 교회를 뜻하며 실체는 신앙이 인간으로 하여금 총체성을 갖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그의 생애를 통해 신앙이 그와 미적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실러는 생전에 신앙심이 깊었고, 한때는 신학을 전공하여 목사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예측컨대 실러는 본인 스스로 신앙을 가진 상황에서 교회라는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실제 총체성을 갖춘 인간으

4) 미학편지,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안인희 옮김, HumanArt, 2012.05.14. 214쪽

로서 자신이 가정한 미적상태와 가장 유사한 모습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물리적,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은 종교적 공간에서 인간이 오로지 도덕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인간상과 신앙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그는 미적교육을 통해 인간은 미적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를 미적 가상 국가라 정의하였다. 이곳에서 인간은 서로 대면하지만 형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실러는 이러한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 이러한 국가가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만약 그의 생각과 같이 미적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면 이는 정치개혁을 통해 이를 수 있는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사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는 어쩌면 실러의 머릿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일지도 모른다. 나는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교육에 대해 분석하며 그가 말한 총체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총체적인 인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다. 제로 상태라 표현되는 미적상태에 이른 인간은 모든 잠재적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미적 교육을 통해 아름다움을 체험함으로써 원천적인 최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제2의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러는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인간상의 모습을 띤 사람들을 교회에서 발견한 듯하다. 그가 미학편지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순수한 교회는 정선된 모임으로서 총체적 인간상을 갖춘 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러가 꿈꾼 미적 국가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총체적인 인간상에 가까운 모습, 즉 미적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미학편지,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안인희 옮김, HumanArt, 2012.05.14.
- 프리드리히 실러의 미적 교육론, 프리드리히 실러, 윤선구 외 5명 옮기고 씀, 대화문화아카데미, 2015.07.20.
- 미적 교육론, 김수현 저, 현실문화, 2011.02.28.
- 네이버 해외저자사전 '프리드리히 실러'